

<포럼>연예인에 대한 이중심리

[문화일보 2005-01-29 11:13:01]

이른바 ‘연예인 X 파일’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퍼지면서 인터넷을 통한 정보 교환의 문제점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인터넷의 익명성·실시간성으로 인해 정보가 걸러지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웹에서 돌아다니고 있어, 누구나 쉽게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접하고, 퍼뜨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본질은 오히려 다른 곳에 있다. 정보의 대상자가 연예인이라는 점 때문에 정보의 진실과는 관계없이 대중의 관심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요즘 세대들에게 연예인들은 선망(羨望)의 대상이다. 글자 그대로 부럽게 우러러 본다는 뜻이다. 평범한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갖고 싶고 부러워하는 것들은 크게 돈·명예·권력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것은 사람들이 표면상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이며, 이런 것들로 사회의 계층이 분류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인간의 내면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진정으로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고 원하는 것은 무엇보다 사랑과 관심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돈·명예·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도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연예인들이 궁극적으로 선망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이 돈을 많이 번다는 것과 유명해지는 것도 그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랑 자체가 그들의 성패를 가름하기 때문일 것이다.

예전에는 유명한 연예인은 말 그대로 하늘에 있는 스타였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영화나 텔레비전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일방적이고 소극적인 사랑을 보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양상이 많이 바뀌었다. 다양한 매스 미디어의 발달로 한정된 공간이 아닌 어느곳에서나 그들을 만날 수 있고, 또한 그들의 사소한 일상도 알 수 있다. 더 이상 그들은 하늘에 뜬 별이 아니고 언제나 옆에 있어 주는, 나와 매우 친밀한 사이가 돼 버렸다.

그런데 그들이 부러움의 대상인 동시에 질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스타가 갑자기 인기가 오르면 동시에 안티 팬도 늘어난다. 이런 심리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다. 좁은 국토에서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은 두세 다리만 건너면 혈연이든 학연이든 지연이든 간에 연결이 된다. 그러므로 너나나나 별 차이가 없으며 남과 다름을 인정하는 데 인색하다.

같은 맥락에서, 비록 인기 있는 연예인이지만 그들이 드라마 한편에 얼마를 받고, CF 촬영으로 몇 억원을 받았다는 데 민감하게 반응하고 못마땅해 한다. 나와 별 차이도 없는 사람들이 나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대우를 받는 것에 은근히 화가 나기도 한다.

그래서 늘 연예인에 대한 안 좋은 루머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이고, 부풀려지게 된다. 이런 대중의 심리에 맞추어 매체들은 항상 그들을 주시하며 화제 거리를 만든다. 그들은 서로를 적절히 이용하며 또 이용당하며 자신들의 이윤을 챙긴다. 대중 매체와 연예인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공생 관계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가 된 연예인 X 과일을 접한 사람들의 82%가 진실이라고 믿는다고 한다. 여기에는 어떠한 증거나 확실한 출처도 없지만, 이른바 잘나간다는 사람들의 비리나 좋지 않은 소문을 제멋대로 재단해서 사실화시키면서 쾌감을 느끼는 심리가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다.

이번 일뿐만 아니라 사이버상에서 네티즌의 무책임하고 공격적인 언사들이 문제가 돼 왔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고통 받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개인 신상 정보 유출에 대한 많은 우려를 제쳐두고라도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도덕관문을 심각하게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의 매스 미디어란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정보를 차별 없이 나누어 주려 한다.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떤 정보를 어떻게 선별하느냐 하는 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몫이다.

[[권준수 / 서울대 의대 정신과 교수